

상장기업IR

Korea  
SME's  
SCALE  
Day



비상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6/24(수)

■ 주제 | AI 시대,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

- 가온칩스
- 오픈엠티테크놀로지
- 알엔알랩
- 일리아스시
- 칩스앤미디어
- 씨이랩
- 저스팀
- 한미반도체
- 티에스이
- 모레
- 액시언
- 그리드위즈
- 듀오픽스레이



---

본 리포트는 6월 24일 Korea SME's & Startup 행사  
참석 후 당사 리서치팀에서 비상장기업 대상으로  
작성한 후기(Takeaway 노트)입니다.

---

· 강영훈 선임연구원 [Innovation팀]

---

# Contents

- 1 | **상장** 가온칩스 (399720)
- 2 | **상장**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94280)
- 3 | **비상장** 알엔알랩 (비상장)
- 4 | **비상장** 일리아스시 (비상장)
- 5 | **상장** 칩스앤미디어 (094360)
- 6 | **상장** 씨이랩 (189330)
- 7 | **상장** 저스텨 (417840)
- 8 | **상장** 한미반도체 (042700)
- 9 | **상장** 티에스이 (131290)
- 10 | **비상장** 모레 (비상장)
- 11 | **비상장** 액시언 (비상장)
- 12 | **상장** 그리드위즈 (453450)
- 13 | **비상장** 듀오픽스레이 (비상장)

# 알엔알랩

## 레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어닐링 장비

류정도 대표

**레이저 어닐링 장비 개발 기업:** 알엔알랩은 반도체 미세화 공정의 핵심 솔루션으로 꼽히는 레이저 열처리(어닐링)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어닐링이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웨이퍼 표면의 결함을 열을 가해 복원하는 작업. 류정도 대표는 과거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및 울트라텍(現 비코) 등을 거쳤고, 스케일다운 트렌드 속에서 기존 방식의 기존 열처리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최적의 대안은 레이저뿐이라는 확신을 얻어 2017년 회사를 설립. 창업 초기에는 반도체 사업 구조상 스타트업이 최종 엔드 커스터머인 대기업을 상대로 직접 장비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우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술력을 바탕으로 누적 7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 달성.

**독자적 기술 메커니즘과 경쟁력:** 동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은 '포인트 빔 스캔'. 이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매우 좁고 에너지는 균일한 레이저 빔을 초당 수백 미터 속도로 초고속 스캐닝해 웨이퍼 전체를 균일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장비가 구동될 때 미세한 포인트 빔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바닥을 훑으며 지나가는 구조. 특히 레이저의 피크 온도는 매우 높게 가져가면서도 열의 지속 시간은 극도로 짧게 제어하는 것이 가능. 이를 통해 웨이퍼 전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 7~12초 내외로 줄였는데, 회사측은 60초가 걸리는 외산 장비나 120초가 걸리는 기존 국산 장비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속도라고 설명. 또한 좁은 영역에 균일한 에너지를 집중시

킬 수 있어 공정의 균일도를 나타내는 산포 특성이 국내 및 해외 기존 장비 대비 훨씬 우수하다고 언급.

**레이저 어닐링의 필연성 및 향후 로드맵:** 알엔알랩은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미세화될수록 레이저 어닐링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기존 급속 열처리(RTP) 장비는 수십 초 동안 웨이퍼 전체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스케일 다운이 될수록 도판트들이 열에 의해 인터디퓨전(상호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레이저 장비는 특정 영역을 원하는 깊이로 고온 처리할 수 있어 미세 공정에 최적화. 이에 동사는 향후 글로벌 메모리, 파운드리 기업들의 장비 도입 니즈 증가로 급격하게 성장할 레이저 어닐링 시장을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선점하겠다는 플랜을 보유했다.

### 알엔알랩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



자료: 알엔알랩

# 일리아스시

## 후각 AI 기반 특정 물질 탐지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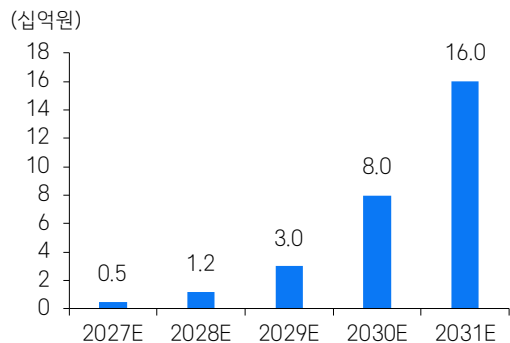
고범석 CEO

**후각 AI 전문 기업:** 일리아스시는 인간의 오감 중 '후각'과 관련한 AI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탐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20년 이상의 AI 및 기술 분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회사는, '22년 12월 설립되어 초기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디지털 마약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마약 탐지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시작. 현재는 마약 외에도 산업 현장의 유독 가스 및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유해물질을 탐지하는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 또한 현재의 피지컬 AI 및 로봇 시장에서 시각 및 청각 기술은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후각 및 미각 기술은 적용이 미비한 상황인데, 향후 궁극적으로는 센서 소형화 기술 등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임베디드 하는 모델까지 염두해두고 개발 및 성장을 지속 중.

**딥러닝 학습 기반 독보적 기술 메커니즘:** 일리아스시는 20~64개의 다채널 센서 어레이를 구축하고, 공기 포집 데이터가 센서에 반응하는 패턴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해당 물질을 인식하는 메커니즘. 특히 반도체 펌이나 화학 공정에서 요구하는 초저농도 ppb 레벨까지의 미세 노출도 감지가 가능. 또한 기존에는 새로운 센서를 신규 개발할 때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면, 동사는 타깃 물질의 샘플 데이터만 확보된다면 짧으면 하루에서 길어도 일주일 이내로의 딥러닝 학습만으로도 새로운 가스나 물질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개발이 가능.

**시장 확장성 및 향후 로드맵:** 동사는 물질 '탐지'를 넘어서, 향후에는 '예측' 기술을 최종 목표로 삼고 기술을 개발 중. 예를 들면 가스 누출 패턴을 분석해, 사전에 폭발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것. 다만 이러한 예측 기술은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26~'27년은 양질의 데이터를 습득할 수 있게 다양한 산업의 기업 및 기관들과 PoC를 진행할 계획. 실제로 관세청으로부터는 마약 데이터 관련 협조를 얻고 있고, 일본 최대 병뚜껑 제조 기업인 NCC와는 생산 공정 화학물질 감지 관련 검증을 진행 중. 또한 최근 마약 관련 이슈로 정부 차원에서 마약 탐지 기술을 필요로 하는 만큼, 동사에서는 관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31년 160억원 매출 달성 목표



참고: 잔류 화합물(27년~) → 산업 유해 가스 (28년~) → 마약 탐지 (29년~) → 폭발물 탐지 (30년~) 진출 계획

자료: 일리아스시

# 모레

## 이기종 AI 인프라 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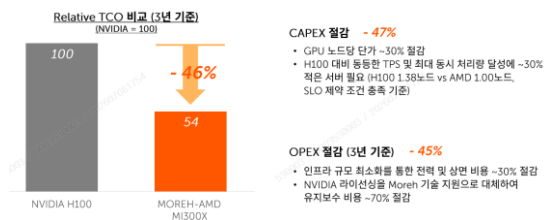
김태원 팀장

**이기종 AI 인프라는 필수:** 모레는 이기종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그동안 데이터센터 AI 가속기 시장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었고, 특히 쿠다(CUDA) 중심의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타 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 왔음. 다만 구매자(데이터센터) 입장에서 엔비디아 하드웨어는 비싼 가격에 따른 마진 압박, 긴 인도 기간(1년 이상) 등의 문제가 존재. 이에 벤더 다변화 및 이기종 인프라 도입이 생존 필수 전략으로 부상. 동사는 엔비디아 GPU 없이도 AMD의 GPU나 텐스토렌트의 NPU 등 타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기종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제공.

**모레의 이기종 AI 통합 솔루션:** 동사는 기존에 보유한 엔비디아 인프라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 시에는 AMD GPU나 텐스토렌트의 NPU 등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기종 AI 인프라 솔루션을 제공. 해당 솔루션은 실시간 워크로드 특성에 최적화된 칩을 자동으로 선택 및 할당하는 기술을 보유. 예를 들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Prefill 단계의 워크로드는 연산 성능이 우수한 GPU에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Decode 워크로드는 NPU가 담당하도록 선택 및 할당이 가능. 또한 기존 AMD GPU는 기존 ROCm 등 오픈소스 추론 엔진을 사용할 때 최적화 문제로 성능이 60~70% 수준으로 저하되었는데, vLLM 최적화를 통해 AMD GPU만으로도 엔비디아와 대등한 수준의 추론 성능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계획:** 동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1) Full Solution - 모레가 직접 AI GPU 서버를 구매해 소프트웨어와 결합한 턴키 솔루션 형태 2) SW Solution - AI GPU 서버를 보유한 고객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만 별도 공급하는 형태 3) SW License - 텐스토렌트 등 글로벌 AI 칩 공급 업체들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고, 칩 판매 시 라이선스 피를 받는 형태로 구성. 회사는 과거 KT를 대상으로 AMD 기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직접 설계, 구축하고 대형 AI 모델을 구동한 독보적 실증 경험을 보유. 또한 AMD 및 텐스토렌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기술 협력 및 공동 개발을 수행 중. 올해 매출 목표는 약 300억원이며,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15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 이는 80%가 하드웨어, 20%가 소프트웨어로 구성.

### 엔비디아 대비 40% 이상 TCO 절감



자료: 모레

# 액시언

## 반도체 설계 최적화 및 수율 향상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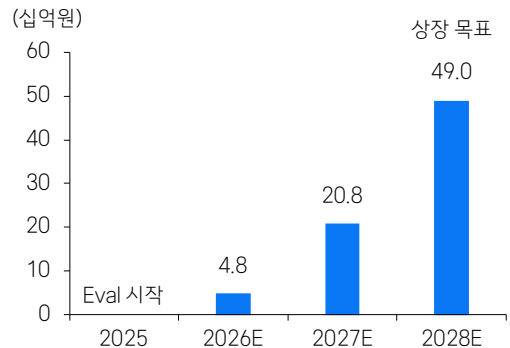
김기섭 대표

**기업 개요 및 경영진:** 액시언은 '24년 설립된 AI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설계 및 공정을 최적화해주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 창립자 김기섭 대표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인텔, 삼성전자, 시놉시스에서 임원을 역임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 또한 국내외 대기업에서 EDA를 담당했던 베테랑들이 경영진으로 참여.

**핵심 제품 라인업:** 회사의 제품 라인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 1) Axion Cell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맞춤형 라이브러리를 시로 자동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여기서 라이브러리는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셀과 게이트를 수백-수천 개씩 미리 분석해 모아 놓은 핵심 데이터 세트를 의미. 기존에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공정마다 범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으나, Axion Cell은 시를 통해 개별 칩의 목적에 맞는 맞춤형 라이브러리를 자동으로 제작해 칩의 성능을 최대 약 10%까지도 향상이 가능 2) 액시언 DFM은 디자인을 바꿔 반도체의 양산 수율을 높여주는 솔루션으로, 고객이 직접 수율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 ECO 단계에서 크리티컬 패스는 건드리지 않고, 기존 일반 셀을 고수율 셀로 교체하는 방식. 3) 액시언 X는 이러한 최적화 엔진을 시뮬레이터가 사용되는 산업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의미.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로드맵:** 동사는 글로벌 타깃 고객을 세가지 그룹으로 세분화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1) 글로벌 반도체 회사 - 언리미티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연간 약 250만 달러를 책정할 계획. 이는 고객에게는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며, '28년까지 6개 회사를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 2)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회사 -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최근 자신들에게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연간 약 200만 달러를 측정할 계획. 3) 유관 산업군 - '28년까지 20개 회사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라이브러리 건당 약 50만 달러를 측정할 계획.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28년 약 490억원 규모의 매출을 만들고, 이후 조 단위 기업 가치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

### 액시언의 매출 플랜



자료: 액시언

# 듀오픽스레이

## 산업용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전승익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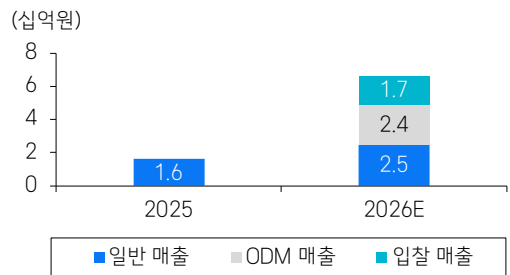
**산업용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 듀오픽스레이는 창업 초기부터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동영상 엑스레이 디텍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 온 기술 기업. 이미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및 점유율 경쟁이 심화되어 레드오션인 의료용 시장과는 달리, 산업용 시장은 기술 진입 장벽이 높으나 수익성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 특히 최근 제조 공정의 자동화 트렌드와, 기존 샘플링 방식에서 인라인 검사 방식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높은 프레임 속도와 고해상도, 고감도를 갖춘 동영상 디텍터 수요가 급증. 검사 대상 역시 기존 전력 부품 외에도 반도체 기판, 전장 부품 등으로 확장 중이며, 특히 불투명하여 기존의 광학 검사로는 미세 결함을 검출하기가 어려운 HBM 유리기판 분야에서 엑스레이 투과 검사가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 중.

**독자적 TFT 영상 센서 기술력:** 디텍터의 핵심 부품이자 제조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TFT(박막 트랜지스터) 이미징 센서. 현재 글로벌 산업용 엑스레이 디텍터는 미국의 바렉스, 텔레다인, 달사 등이 장악하고 있음. 바렉스는 고성능 2세대 TFT 기술을, 텔레다인 및 달사는 CMOS 방식을 주력으로 사용 중이나 미국산 제품들은 단가가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음. 반면 중국 제조사들은 저렴한지만 구형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락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해 인라인 전수 검사 공정에서는 한계가 발생, 이에 듀오픽스레이는 잔상을 지워내는 3세

대 TFT 이미지 센서를 독자적으로 설계 및 특허 등록. 또한 감도를 증폭시키는 트랜지스터를 추가한 신제품 등을 출시. 이를 통해 픽셀 사이즈가 작아지면 프레임 속도가 떨어지는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가장 높은 해상도와 압도적 고속 구동을 동시에 구현.

**비즈니스 다변화 전략:** 동사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장비 특유의 긴 평가 기간 및 적은 초기 수량으로 '25년 매출이 16억원에 머무는 부진을 겪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조 원가를 대폭 낮추고 사양을 다각화하는 다운그레이드 전략을 준비했으며, 대량 납품이 가능한 ODM 공급 및 해외 정부·국방부 입찰 시장으로 판로를 다변화. 그 결과 중국 파트너사들과 '26년 175대 및 '27년 550대 규모의 ODM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입찰 시장에서도 영국 160대 및 아일랜드 100대 등의 성공을 달성. 이에 '26년 매출 66억원의 비약적 성장을 기대 중.

### 듀오픽스레이의 26년 목표 매출



자료: 듀오픽스레이



성장기업IR

Korea  
SME's  
SCALE  
Day



비성장기업IR

Korea  
START  
SCALE  
Day



## 삼성증권 성장기업 IR DAY

대한민국 SME & Startup 기업들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산업별 기업들의 IR행사를 통해 성장스토리를 전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멤버십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멤버십 정보  
소개

### When

성장기업IR  
-26년 5월~10월 넷째주 금요일

비성장기업IR  
-26년 5월/10월 둘째주 목요일

### Who

-VC, CVC, 비상장기업 투자 일반 법인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중소형주펀드운용역 등

### How

-멤버십에 등록하신 분들께 매달 멤버십  
행사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매달 공유되는 멤버십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링크에 접속합니다.

### Others

-본 멤버십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모든 일정의 참가는 자율입니다.



멤버십 신청 바로가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삼성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B1954호(2026.06.19 ~ 2027.06.18)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077%~0.5%(KRX, NXT 포함)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증권

## 삼성증권

-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